

1964年の 大學圖書館

— 주로 教育的 機能을 觀點으로 하여 —

千 惠 鳳

우리 나라 圖書館界에 있어서 大學圖書館이 比較的 順調하게 發展하여 왔다는 말을 흔히 듣는다. 이것은 必是 이제 바야흐로 봄을 일으키기 시작한 學校圖書館과 그 뒤를 잇달아 設置를 서두는 公共圖書館에 比해서 일컫는 相對的인 表現일 것이다. 하기가 動亂으로부터 收復後 大學圖書館의 數가 急激히 增加되었고 特히 最近 10年間에 雄壯한 建物이 到處에 續續히 세워졌으니 우리 나라 事情으로서는 그렇게 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現代教育에 있어서 大學圖書館이 地닌바 本然의 任務에 立脚하여 圖書館 運營과 業務의 하나 하나를 客觀的으로 分析하여 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우리 나라의 大學圖書館은 大體로 外的으로는 建物이 크고 治粧이 잘 되어 훌륭하게 보이나 內的 即 教育的 機能을 發揮할 수 있는 具體的 要素인 資料의 充實化라든가 設備의 完備 및 奉仕의 合理化에 있어서는 아직 欠點과 未備한 點이 많다. 最近 4·5年前 부터는 一般的으로 內容充實期에 접어들었으나 急變하는 經濟的 惡循環으로 말미암아 沈滯狀態에 놓여 있다. 特히 今年은 그 어느해 보다도 圖書館機能이 癱瘓狀態에 빠지고 있으니 別로 이렇다할 特記事項도 없다. 그러므로 本論題에서는 大學圖書館의 教育的 機能을 觀點으로 하여 지나간 날을 돌이켜 보고 그中 몇가

지 問題點을 들어 卑見을 披瀝하려 한다.

一. 教授와 司書의 協同問題

學校教育의 共同目標로 指向하기 위하여 教授와 司書의 協同이 暫次的으로 強調되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兩者協同이 高潮되고 있는 까닭은 圖書館이 全體的인 教育單位의 主要한 一部分이므로 그 機能을 效果的으로 遂行하려면 무엇보다도 教授와의 緊密한 協同이 必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實踐面에 있어서 지나간 날을 돌이켜 보면 反省하고 是正하여야 할 點이 많다. 그間 우리들이 兩者協同으로 해온 일로서는 學校案內나 블레틴을 通하여 圖書館의 方針과 運營의 實際를 教授와 學生에게 알려주고, 또 學科單位로 圖書를 選擇하는데 教授와 協同하는 程度가 高작이었다. 學校教育의 諸問題를 論議하는 席上에 館長이 參與하였다는 말을 別로 들지 못하였으며, 學術研究 및 여러 모임에 館長이나 責任司書가 參與하여 教授와 學生들로부터 圖書館에 對한 要求事項을 듣고 이를 解決하여 주었다는 소리도 別로 들지 못하였다. 이것은 教授의 圖書館과 司書의 職能에 對한 認識이 不足한데서 오는 缺陷인 것이다. 教授는 우리 司書를 圖書館에서 일하는 平凡한 事務職員으로 여기고 또 그렇게 對하여 왔다. 司書는 教授가 要求하는 資料를 購入 또는 蒐集하

여 정리만 하면 그職分을 다 하는것 처럼 생각하여 왔다. 우리 大學圖書館의 司書는 事務職員이 아니요 또한 資料整理만이 司書職能의 다가 아니다. Wilson氏가 言及하드시 『從來는 圖書館을 運營하는 技術者나 管理者로서 認識해 왔지만 이제는 學校管理者 教授 學生 및 其他 伴侶들을 위하여 責任을 지는 敎職員』이며 또 『學校의 敎育目的을 計劃하고 遂行하는데 全的으로 參與하는 適任者』임을 自負하여야 한다. 그와 同時에 우리 스스로가 實力을 培養하고 教授로 하여금 司書의 職能을 올바르게 認識하도록 不斷히 努力하므로써 對等한 立場에서 圓滿한 兩者協同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겠다.

二. 豫算 및 資料

1955年8月4日에 大學設置基準令이 公布된 後 藏書構成을 法으로 規制하여 왔으나 結果的으로는 量的 統制에만 置重한 나머지 質的인 面이 等閑視되어 畸形的인 狀態를 招來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量的인 面이 어느 程度 滿足할 만한 成果를 거두었느냐 하면 이것 또한 그렇지 못하다.

1964年3月末 現在 奎章閣藏書를 合한 서울大中央圖書館藏書 615,622冊을 除外하고 全國 16個綜合大學圖書館의 平均 藏書數는 98,179冊이며 單科大學圖書館은 最高數가 75,000冊, 最少數가 810冊이다. 外國의 어느 大學圖書館藏書數와 比較하더라도 갈도 되지 않을 程度로 그 量이 貧弱하다.

위에서도 言及한바 있드시 初期는 建物を 짓는데 置重했고 4·5年前 부터는 繼續되는 經濟的 惡循環으로 豫算配當이 不足이어서 授業進行에 必要한 圖書조차도 適

期에 購入치 못하는 形便이었다. 1963年 부터는 文教部 當局의 措處에 依해 資料 購入費 豫算의 一部를 學生의 自活的 經費로 부터 補助 받고 또 今年에는 期成會費로 부터의 補助가 이에 追加되었으나 量的 增加에는 別로 큰 變動을 주지 못했다. 1964年3月末 現在 綜合大學圖書館의 年間 增加冊數를 보면 慶熙大圖書館의 飛躍的인 增加數 26,095冊을 除外하고 平均 3,946冊 程度이다. 이것은 美國大學中 中間規模인 켄터키大學의 年間增加數 15,079冊(1962—63年)의 約 四分之一이 되며 日本의 中間大學인 京都大學圖書館의 年間增加數 11,654冊(1962年)의 約 三分之一 밖에 안된다. 特히 今年度는 弗의 換率의 倍額引上으로 年間收入量이 切半이나 減少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狀態는 文教部當局과 學校管理者의 特別한 別途의 豫算措處가 없는 限 明年에도 繼續될 것이 자못 憂慮된다.

圖書館은 學校敎育의 센터이며 自主的인 學習場所이므로 直接 敎科課程에 關聯된 資料는 勿論이요 學生과 教授의 專攻分野의 深奧한 研究를 돕는데 必要한 資料와 敎養書 및 職業指導에 必要한 資料를 高루 選擇 蒐集할 수 있는 程度의 豫算이 樹立되어야 한다. 이 圖書館資料에는 圖書 刊行物以外에도 視聽覺資料가 包含되어야 함은 勿論이다. 視聽覺資料는 急速度로 敎育의 成果를 올리고 있으며 特히 中中 映畫 필름 音盤 슬라이드 마이크로 필름과 카이드는 確實히 敎育方法을 改善시키고 學生의 學習態度를 向上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現在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몇몇 大學이 이 視聽覺資料의 一部를 備置하고 있을뿐 大部分의 大

學에 있어서는 豫算의 不足으로 꿈도 꾸어 보지 못할 形便에 있다. 1964年3月末 現在의 統計에 依하면 37個校에 視聽覺室이 있으나 이것은 室만이 準備되어 있음을 表示한데 不過하고 活用하고 있는 곳은 몇몇 圖書館에 지나지 않는다. 視聽覺資料의 利用이 教育成果에 至大한 影響을 끼치는 點을 올바르게 認識하고 그 完備에 힘을 기우려야 한다.

三. 奉 仕

學校圖書館의 專門職司書는 學生의 個性과 個人差에 應하는 個人指導와 相談을 通하여 間接的인 教育機能을 發揮하는 任務를 擔當한다. 換言하면 專門職司書는 學生의 興味 要求 및 能力에 따라 圖書館資料의 利用을 恒常 指導하고 案內해주는 것을 第一 重要한 課業으로 삼는다. 이러한 指導奉仕는 主로 參考司書가 擔當하며 指導內容으로서는 參考圖書 및 一般圖書館資料의 利用法, 資料索出法, 論文作成을 도와 주는 일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實情은 果然 어떠한가? 1964年3月末 現在의 計統에 依하면 101個 圖書館中 參考閱覽室을 가지고 있는 圖書館이 56個館에 不過하다. 이 數字는 前年度에 比해 26個館이나 增加된 셈이 되나 實際 運營面에 있어서는 批判의 餘地가 많다. 參考圖書의 備置도 貧弱하고 教育을 받은 有能한 參考司書가 配置되어 있지 않다는 評이 있다.

參考司書는 또한 各種書誌(目)를 準備하여 圖書館의 効用을 圖謀하여야 한다. 綜合目錄 國別書目 各圖書館藏書目錄도 빠질없이 備置하여 文獻調査 및 自己圖書館藏書와 圖書館相互貸出制度에 依한 他

圖書館의 資料를 高루 利用할 수 있도록 指導해 주어야 한다.

參考奉仕以外에도 閱覽奉仕 全般에 걸쳐 運營의 妙를 거두어야 할 點이 적지 않다. 될 수 만 있다면 接架制의 運營으로 學生과 資料와의 障壁을 없애고 直接資料를 書架에서 끄집어 내어 볼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도 讀書意慾을 增進시킬 것이다. Reserve制度를 마련하고 教授와 協同으로 各學科에서 教材로 指定된 圖書를 여러 部씩 準備하여 豫習 및 復習의 便利를 圖謀해 준다면, 低級學年用 閱覽室을 設置하고 程度가 낮은 資料만을 한곳에 配列하여 接架制로 便利하게 利用토록 한다면, 讀書俱樂部와 같은 讀書서어클을 組織하여 學生의 教養을 높이는 데 이바지 한다면, 또 資料의 館外貸出을 許容하여 家庭에서의 餘暇讀書를 積極勸奨하는 等매위의 奉仕를 한다면 大學圖書館의 教育的 機能은 더욱 成果를 올릴 것이다.

四. 오리엔테이션問題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을 一般적으로 新入生案內教育이라 한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새로운 圖書館의 知識과 實際가 導入된 以後부터 이 案內教育이 實施되어 왔으나 매우 形式的이라는 評이다. 그나마도 다 實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圖書館에 따라서는 學校案內와 불레틴을 配布하는 程度로서 호지부지하는 例도 있는 듯 하다. 우리 나라의 學生들은 거의 大部分이 圖書館利用이 서투른 處地에 있다. 外國에 있어서는 中學校 時節 부터 訓練을 받아 온 關係로 比較的 能熟한 便임에도 教科課程에 圖書館利用法을 마련

고 교육을 實施하는 곳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對한 對策이 考慮되어 있지 않다. 專門職 司書의 育成을 위한 圖書館學科는 每年 그 數가 增加되고 있는 實情이나 一般學生을 위한 教育은 다만 一部 教育大學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듣고 있다. 아무리 豊富한 資料가 잘 整理되었다 하더라도 學生이 그 利用法을 모른다면 圖書館의 機能은 절름바리 格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點을 이모 저모로 參酌할 때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이 案內教育만은 教師와 司書의 合同計劃下에 徹底히 實施되어야 한다. 實施에 있어서는 「圖書館案內」를 配付하여 講義와 現地教育을 並行하여야 하며 또한 映畫上映에 依한 教育도 아울러 實施하면 더욱 効果를 올릴 것이다.

結 語

위에서 大學圖書館이 겪어 온 일들 中 몇가지 問題에 對하여 教育的 機能面에서

살펴 보았다.

民主主義教育의 立場에서 볼때 大學教育의 心臟部로서의 大學圖書館은 그 구실이 實로 重大한 것이며 現代教育은 圖書館을 떠나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우리 司書는 在來의 運營方式을 改善하여 研究 및 學習生活化의 圖書館으로 環境을 造成하고 學生스스로가 事實을 調查하여 인포메이션을 얻고 知識을 探求할 수 있도록 最善을 다 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現代的인 大學圖書館의 性格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現實을 參酌할 때 短期間內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 于先 圖書館發展計劃을 樹立하여 必要한 豫算을 確保하고 그 計劃을 段階的으로 促進함이 必要하다. 그리하여 5年後 또는 10年後에는 名實 共히 大學教育의 目標과 方針에 呼應되는 教育센터로서의 圖書館任務를 圓滑히 遂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끝)

(筆者 東國大學校圖書館司書課長)

1964年度 協會費를 早速히

納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方에 계시는 團體會員 諸位는 빨리 會費를 納入하여 주셔야만 配付函의 圖書를 發送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會費속에 配付函送料가 包含되어 있기때문에 現在 滿函이 되었어도 發送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出版物代金도 해가 바뀌기 前에 整理해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